

탐방

“전북지리교사모임”을 찾아서



권예원
전주덕일중학교 교사

Q — “전북지리교사모임”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북지리교사모임은 전라북도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함께 교과를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습자들에게 지리를 의미 있게 가르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2017년 5명으로 시작하여 점차 규모가 커져 지금은 73명의 회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리교사모임은 매년 현재 지리 교과의 방향성, 독서 논평, 수업사례 나눔으로 세미나를 운영하며, 연 1회 다른 지역을 답사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그리고 그 속에 연결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Q — 연구회에서 지향하는 청소년기 시민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교과는 청소년기의 시민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모든 교과에서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우리 연구회는 지리적 시선으로 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주로 자라온 지역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서울 사람, 부산 사람, 대전 사람, 전주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각기 다른 색깔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리를 통한 시민성은 자연적, 인문적 환경에 따라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지, 그 경험에 따라 어떤 공동체의 특성을 갖게 되는지 이해하도록 합니다.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눈이 생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인정교과서 ‘환경과 인간 생활’



중학교 인정교과서 ‘지역과 시민: 꽃심전주’

Q — 청소년 시민교육을 위한 연구회의 다양한 활동, 그리고 인정도서 개발의 참여 계기와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연구회는 고등학교 인정도서 “환경과 인간 생활”을 집필하면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확대된 교사 교육과정을 실천한 역량 있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환경과 인간 생활”에 들어갈 교과 내용을 집필하며 국가 수준에서 심화된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큰 의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시민: 꽃심 전주”는 “환경과 인간 생활”을 집필해 본 교사들과 전북지리교사 모임 교사들이 다시 모여 만든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용 교과서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전주 시민”이라는 시민성을 함양하게 하고, 인구 소멸 시대에 우리 지역을 더욱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주 지역은 전북 특별자치도의 도청소재지이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지역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주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기 위해 즉,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는 전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학생들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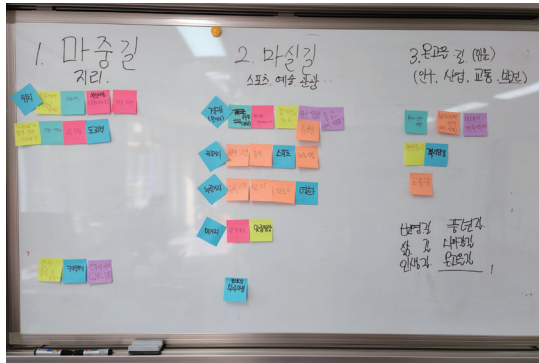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 중학교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개발 당시 학교별로 교육청의 인정심의를 받은 교과서가 필요하여 교과서 개발이 더욱 필요하였습니다.(현재는 교과서가 아닌 교수학습자료도 운영가능합니다.) 교과서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필 규정, 교정, 검토, 디자인 등 여러 과정이 필요했고, 교육부 사업과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도움으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과 시민: 꽃심 전주”로 전주 지역 중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이용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 인정도서 “지역과 시민: 꽃심 전주”를 집필하시면서 집필자로서 경험하신 보람이나 개발 과정에서의 아쉬운 점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인정도서 집필 계획이 있으시다면 보완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교과서를 집필한 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교과서들을 대하는 시선이 변하였습니다. 교과서야말로 집필진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산출물이며 수업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자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교과서를 집필한 후 제 수업에서 교과서를 적극 활용한 수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집필진들과 함께 “지역과 시민: 꽃심 전주” 집필 세목을 함께 논의하였을 때 동료 교사들의 시선을 통해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위치’, ‘역사’, ‘경제 규모’, ‘축제’, ‘관광’을 통해 바라볼 수도 있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직업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우리 지역은 과연 지속가능한 터전일까를 고민하게 한 단원이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가’, ‘사회적 약자에게도 안전한 삶터인가’, ‘지속가능한 삶터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를 묻는 단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자 진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고민을 담은 단원이었습니다.



교과서 집필 당시 목차 회의



“지역과 시민: 꽃심 전주”교과서 목차

Q — 앞으로 연구회의 계획(연구, 실천 등)을 알려주십시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세계적 문화가 생길 줄 알았지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지역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통해 한국다움을 발견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한 한국 문화의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지리교사모임은 앞으로도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 곳곳의 자연·인문 환경을 연구하며, 교실에서 아이들이 “한국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계다움”으로 펼쳐낼 수 있도록 계속 돕겠습니다. “지역과 시민: 꽃심 전주”의 후속으로 “나에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집필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모든 시군의 특성을 지역개발, 관광, 생태, 재생에너지 등의 개념 렌즈를 통해 바라본 교과서입니다. 이 또한 고등학교 인정도서로 국가

교육과정을 넘어 교사들의 지역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교사들에게 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 자료, 수업 운영 등을 안내해 주신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민교육은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시민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뿐 아니라 국어 시간의 문학작품 속에도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삶이 녹아들어 있으며, 수학 시간 역시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세상의 원리를 숫자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리는 사람들이 밟고 서 있는 땅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를 발전시키며 공동체의 삶을 다양하게 이루어 냈다는 점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어떤 지리적 특성이 공동체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양성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시민교육은 성취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교과 내용과 역량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라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에 맞춰 수업을 디자인한다면, 그것이 교사의 시민교육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지리교사모임 연구회에 참여를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솔내고등학교 윤대성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JB메신저).



선생님, 반짝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나의 부족함이 학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더 멋진 수업, 더 특별한 교실을 꿈꾸지만

때로는 그 기준이 나를 작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교실이 항상 재밌고 특별해야 하죠?

매일 먹는 집밥처럼

특별하지 않아도 든든한 하루.

그저 일상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교실에 가장 필요한 마음 아닐까요

담담하게 매일을 살아가는 선생님의 모습이

학생들에겐 가장 소중한 배움입니다.

오늘도 교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모든 보통의 교사를 응원합니다.

● **지학사** X **학교 한줄**



선생님의 올바른 가치와
참된 가르침처럼
77년간 교과서를 만들어
온 사명으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주)미래엔

* 2024년 발행 부수 기준

Mirae N



미래엔 교수지원플랫폼 엔터처
www.m-teacher.co.kr

